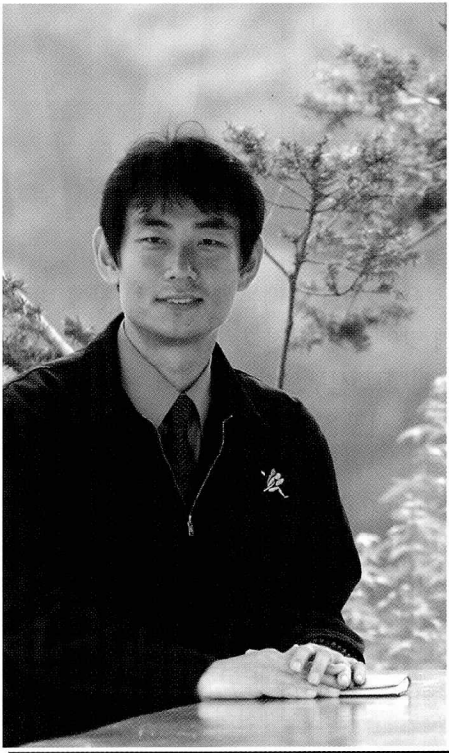


# 오토리브만도(주)

## 과장 김 필 재

안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은 지 10년, 안전지킴이인 오토리브만도(주)의 김필재 과장을 만나 오토리브만도(주)의 안전에 대한 비전과 안전공학도로서 지난 10년 안전보건업무를 통해 느꼈던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급성장 하면서 「2002년 “지식오피스” 중소기업 부분 대상」과 「Global Business Leadership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토리브만도(주)에 저는 창립 PJT 팀원으로 현재 안전관련업무와 공장증설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언제부터 안전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어떠한 사명감으로 근무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하였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안전보건업무로 사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의 안전보건업무는 한직이고 안전관리자만 하는 등의 팽배한 인식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였으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개척해야 하는 분야라는 생각과 업무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관련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나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은 어떤 곳이며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회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자동차 안전장치를 만드는 글로벌 업체인 오토리브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만도의 공동투자로 2001년 2월에 강원도 문막에서 첫걸음을 시작한 기업으로 자동차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 40여명으로 시작한 저희 회사가 5년이 지난 지금 600여명의 가족으로

오토리브만도는 안전장치를 개발 보급하는 기업으로 안전에 대한 마인드는 특별하리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토리브만도(주)는 차량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 부상을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사용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기술력과 고품질을 담보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보건분야에서도 시도되는데, 그중 금년 새로이 부임한 이성민 사장님의 「사내 원만한 의사소통」이 대표적입니다.

사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성민 사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주단위 현장간담회”, “관리직의 Skip Level Meeting”, “리더십 트레이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밖에 HR팀에서 실시하는 주간 안전점검, 월 1회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Safety Staff Meeting」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HR팀에서 작성되는 RIR(Risk Inspection Report)은 이성민 사장님을 거쳐 Asia 본사에 보고되고, 본사로부터는 주기적으로 Audit를 받는 등 현장 근로자 중심의 선진안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대해 미비한 점을 느꼈을 텐데요.

몇 가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안전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장에서 일할 때 몇가지의 교육으로 안전의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과정(교육, 훈련)을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해와 수행능력을 키우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품질문제의 원인과 생산성 장애의 원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 품질, 생산을 각각의 업무로 보는 시각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원인과 예방책을 모두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용어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이

며, 이익 창출보다는 정부규제에서 시작한 안전문화계몽 문구에 가깝습니다. 안전은 품질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품질 또한 안전을 떠나 보장할 수 없는 관계에서 볼 때 안전제일이라는 개념보다 “with Safety”의 의미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이 선진 외국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선행 과제가 무엇인지요.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 인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가 경영 Risk를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안전이 곧 손실방지”라는 인식 하에 환경오염, 물적피해, 근로자의 건강,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RND, 생산, 품질, 자재입고, 출하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잠재해 있는 물적·인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안내할 수 있는 실무자의 육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 광범위한 일을 처리하는 관리기법을 배워 적용해야 합니다. 

〈최종덕 기자〉